강진 '문화복지타운' 건설사 선정 반년 넘게 미뤄

"특정업체 봐주기 하나" 거센 비난

KDI 용역결과 불구 郡서 비전문기관에 또 자문 요청 '의혹'

강진군이 민간투자방식(BTL)으로 대규모 문화복지종합타운 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뚜렷한 이유없이 반년이 넘도록 업체 선정을 미루고 있어 '특정 업체 봐주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강진군은 올 초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남해종합개발과 남양건설이 제출했던 사업계획서 평가용역을 의뢰, 그 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한국개발연구원이 지난 1월 남해개발이 적격 1순위, 남양건설이 적격 2순위라는 용역결과를 내놓았으나 7개월이 다 되도록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미뤄지고 있다.

강진군은 적격 2순위업체인 남양건설측이 이의를 제기한데다 고문 변호사 자문 과정을 거치느라 결정이 늦어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한국개발연구원과 군 고문변호사 등이 2순위업체의 이의제기에 대해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통보한 뒤에도 강진군이 전문기관이 아닌 시민단체인 아름다운 재단측에 또 다시 자문을 의뢰해 그 배경에 의혹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은 "국내 최고 권위를 가진 전문기관의 용역 결과는 뒷전인 채 경쟁업체의 이의 제기에 더 신경을 쓰는 것은 특정업체를 지나치게 배려한 것 아니냐"며 "수억을 들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놓고 또 다시 시민단체에 자문을 요청한 것은 예산 낭비일뿐 아니라 행정의 일관성이나 투명행정과도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남해개발측은 "올 초부터 사업추진에 대비해 관련 인력을 충원했으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늦어지면서 금전적 손실도 적지않다"며 "용역결과가 나오면 보름이내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통보하도록 BTL 기본계획에 명시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문화복지종합타운이 들어설 강진 군민회관 일대. 강진 문화타운은 490억원이 투입돼 대형 공연장과 야외 음악당, 미술관 등이 건립된다.

이에대해 강진군은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점 의혹없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군 고문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받았고, 중립적 시민단체의 자문도 의미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아름다운 재단에 자문을 요청했다"며 "8월중에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490억원이 투입되는 강진 문화복지종합타운은 기존 군민회관과 보건소 일대 부지 1만1천여㎡에 1천석 규모의 공연장을 비롯해 야외음악당, 미술관, 복지회관 등 복합시설로 꾸며진다.

/강진=이병철기자 mood@

대불 자유무역지역 입주율 80% 육박

영암군 삼호읍 대불산업단지 내 대불자유무역지역 공장용지 입주율이 80%에 육박하고 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서부지사에 따르면 조선업체의 수주량과 건조량이 사상 최대치에 이르는 등 조선산업 호황으로 대불 자유무역지역 내 도로, 청사, 표준공장 등 시설부지를 제외한 공장용지의 입주율이 77%에 이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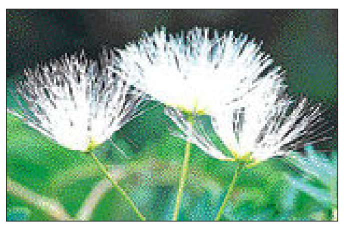
이 곳에 입주한 16개사는 ㈜현대미포조선 등 국내기업 8개사와 K.S 야나세산업㈜ 등 외국인 투자기업 8개사이며 업종별로는 조선관련 업종 15개사, 일반기계 제조 1개사로 조선업종 비중이 높다.

서부지사 관계자는 "자유무역지대에 입주한 현대미포조선 등 5개 업체가 본격 가동되면서 고용확대 및 생산, 수출액이 꾸준히 늘고 있다"면서 "올해 말까지 조선, 기계관련 4개 업체가 더 입주할 것으로 예상돼 입주율이 80%를 넘어 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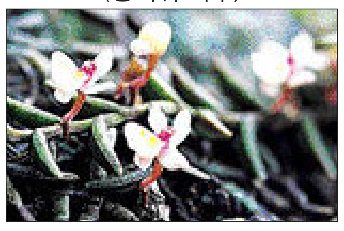
이와 함께 2008년 임대예정으로 공사가 진행중인 자유무역지역 내 표준공장 6개 동, 물류창고 등 임대형 공장 등에는 70여 개 기업이 입주해 연간 12억 달러, 5천여 명의 고용 창출이 예상된다.

/영암=김한남기자 hnkim@

서남해안 야생 동·식물 DB시스템 구축 본격화



〈왕자귀 나무〉



〈지네발 난〉

목포를 비롯한 서남해안지역에 서식하는 특산 야생 동·식물 DB시스템 구축이 본격화된다.

목포시는 목포 자연사박물관(관장 김창호)과 과학기술부 국립중앙과학관(관장 조청원)이 소장하고 있는 국가생물자원 실물정보 통합 DB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정보통신부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2010년까지 왕자귀 나무, 지네발 난, 홍어 등 총 5만건의 목포·서남해안지역 특산 야생 동식물 실물정보'를 DB화할 계획이다.

구축된 정보는 OECD산하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GBIF)와 국가지식포털(한국 정보문화진흥원)과 국가생물자원 정보관리센타(과학기술부), 그리고 7개 주요 인터넷 포털에 등록하여 전 세계에 서비스할 예정이다.

목포 자연사박물관 관계자는"올해 1~2만건의 생물다양성정보를 구축해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GBIF)에 등록, 2010년까지는 세계 중요 자연사박물관 173개 참여기관 중 100위권 이내 진입을 목표로 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여수 화양농공단지 인근

이번엔 바지락 폐사

벼 고사 이어 또 피해 주민들 원인규명 촉구

여수시 화양면 나진리 화양농공단지 주변 소장뜰 일부 논 벼가 고사된 데 이어 인근 갯벌 바지락이 폐사돼 어민들이 원인 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여수시 화양면 안포마을 어민들은 인근 화양 농공단지에서 폐수가 바다로 유입돼 지난달 말부터 마을 앞 갯벌 20ha에서 생산되는 바지락이 폐사됐다고 주장하면서 정확한 원인 규명과 함께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어민들은 "바지락 10개를 캐면 8개는 알맹이가 없는 폐사 상태"라면서 "농공단지에서 폐수가 유입된 것 말고 다른 이유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여수시는 갯벌 시료 채취를 통한 폐사 원인 분석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화양농공단지 인근 나진리 소장뜰 6천여평의 논은 지난 3일부터 벼 잎이 타 들어가는 고사 피해가 발생, 역시 농민들이 관계 당국에 원인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여수=강성훈기자 kangsw@

강진 태양광 발전소 내달부터 가동

시간당 800kw의 전력이 생산되는 '태양광 발전소'가 오는 9월 강진군 마량면 산동마을에 가동된다.

강진군은 군과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7개의 기업중 한전산업개발(주)이 전액 민간자본 투자유치 방식으로 총 사업비 100억원을 들여 지난 1일 착공, 오는 9월 완공된다고 밝혔다.

주요시설로는 6천여평의 부지에 태양광 모듈, 인버터, 송전설비, 관리사 등이 들어선다.

한편, 강진군은 지난 4월 27일 남해에너지발전(주), 5월 10일 한전산업개발(주), 6월 9일 대한테크렌(주)과 태양광 발전소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강진=이병철기자 mood@

포토단지서 '찰칵'

동양 최대의 백련 자생지인 일로읍 회산 백련지에 다양한 사진촬영이 가능한 포토단지가 10개소가 조성됐다. 무안군이 조성한 포토단지는 하얀 연꽃배경과 어울려 색다른 볼거리와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마차와 배, 원두막, 토피어리 등 조형물이 설치돼 있다.

/무안=이원희기자 whlee@

세계의 청소년들 여수서 어울마당

국제청소년축제 오늘 개막

세계 청소년들의 축제가 여수에서 다양한 볼거리와 함께 화려하게 펼쳐진다.

11일부터 13일까지 열리는 '제7회 여수국제청소년축제'는 다양한 부대행사가 청소년과 학부모들의 큰 관심을 끌고 있다.

11일 저녁 7시30분 진남체육공원 주무대에서 열리는 개막 축하공연에는 슈퍼주니어, 윤도현 밴드, 백지영, 별 등 총 16개팀의 인기가수들이 출연한다.

특히 11일부터 이틀간은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유명 뮤지컬 모음 '뮤지컬 갈라쇼'가 여수시민회관에서 1일 2회씩 총4회에 걸쳐 무료 공연된다.

이와 함께 여수시 유명 사적지와 여수국가산단 현장견학 등으로 꾸며질 시티투어와 '2012 여수세계박람회' 홍보관을 견학하는 '오동도~향일함'간 해상투어도 무료 실시된다. 참가는 축제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주행사장인 진남체육공원에는 청소년과 가족이 2박3일의 축제와 휴가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블루 빌리지 캠프를 운영, 숙식을 제공하며, 해양레포츠, 심야영화 등을 참여·관람할 수 있는 5개 행사장은 셔틀버스를 통해 실시간 연계된다.

축제의 대미를 장식할 13일 폐막공연은 '익스프레이션', '라스트 포 원' '멕시멈 크루', '일본 올스타' 등 세계적인 프로 B-boy들의 화려한 베틀공연으로 꾸며진다.

송대수 집행위원장은 "축제에 참가할 국내·외 6만여명 청소년들의 가슴에 '행복도시 여수'에서의 3일간 여행이 영원히 잊지 못할 좋은 추억으로 남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폭염속에 핀 배롱나무 꽃

연일 계속된 폭염 속에서도 담양군 봉산면 면앙정에서 고서면 소재지를 거쳐 광주댐으로 이어지는 12km 도로변에 100일 동안 계속해서 핀다는 배롱나무 꽃이 만개했다.

/담양=차재화기자 jhwha@

무안에 '미국타운' 추진

郡-재미교포 조성사업 투자 협약

무안군에 '미국타운'조성이 추진된다. 무안군은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교민들을 대상으로 남은 여생을 고국에서 편히 보낼 수 있는 '미국타운' 조성사업 투자 협약식을 미국교포 이길중씨와 9일 가졌다고 밝혔다.

무안 현경면이 고향인 이길중씨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목회활동을 하는 목사이다.

이씨는 미국 6개 한국어신문과 TV 광고 등을 통해 100세대 이상을 모집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무안군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사업규모와 위치는 정해지지 않았다"며 "이번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영어마을을 함께 조성,관광과 교육, 문화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지역 발전을 한 단계 끌어 올릴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무안=이원희기자 whlee@

記者 手帖

원칙 파괴된 화순군 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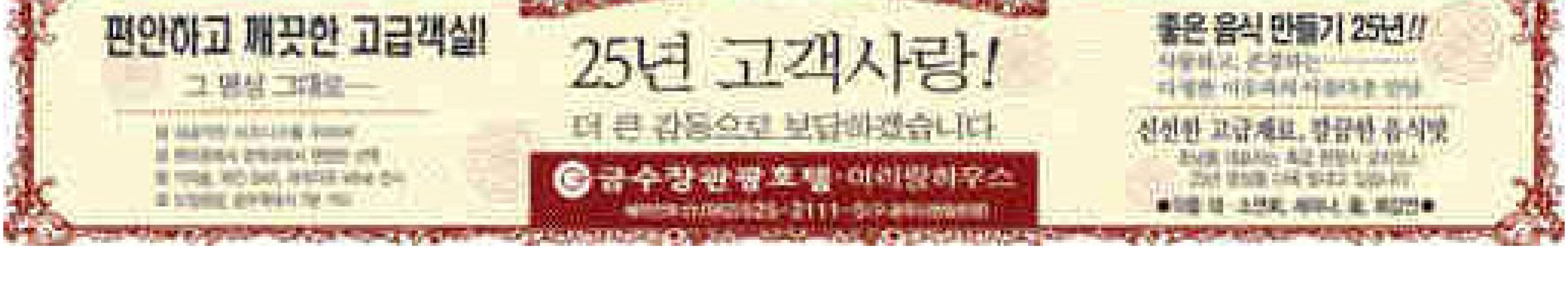
전형준군수가 구속된 다음날인 9일 단행된 화순군 인사를 둘러싸고 뒷말이 무성하다. 물론 인사 특성상 어느 정도의 잡음은 피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이번 화순군 인사는 원칙과 형평성이 철저히 무시됐다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조 성 수
〈사회2부 화순주재〉

그동안 여러차례 정실 인사의 폐해를 실감했던 화순군청 공무원들과 지역주민들은 부임 초 공정한 인사를 다짐하는 CEO 출신 군수의 의욕 넘치는 태도에 큰 기대를 걸었다.

그러나 선거와 관련된 논공행상식 인사설과 인사브로커 개입설이 나오면서 그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졌다. 심지어 하루 걸러 내정자 명단이 바뀔 정도로 흔들리는 인사기준 앞에 공무원들의 허탈감은 극에 달했다.

인사가 만사인 공무원들 입장에서 능력은 뒷전인 채 온갖 연줄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 현실은 참담함 그 자체 일 것이다. 이러고도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직자들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능력에 합당한 자리를 차지한 일부 공무원들 역시 불공정 인사라는 비아냥에 도매금으로 넘어갈 수 밖에 없다. 군수의 충격적인 구속보다 이번 인사가 주는 후유증이 화순군 화합과 발전에 더욱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

화순에서 공정한 인사를 기대하기가 이렇게 어려운 것인지 지방자치에 대한 불신만 지역사회에 커지고 있다.